

폭염에 한달새 배추 116%·무 83.6%·수박 89% 급등

농산물 도매가 평년비 6.5%↑... 정부 수급대책 무소용
배추·무 주산지 강원, 고온·가뭄에 채소값 더 오를 듯

유례 없는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날씨에 취약한 배추와 무 가격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수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워낙 폭염이 장기화되고 있어 급등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주요 농산물 도매가격은 지난달 하순 기준으로 평년보다 6.5% 높게 형성돼 있다. 이를 견인한 것은 배추와 무 등 노지채소다.

배추(1포기)의 도매가격은 지난달 상순 1826원에서 하순 3745원까지 오르더니 지난 1일 3942원까지 올랐다. 한달 만에 115.8%가 된 것으로 8월 상순 평년(2819원)과 비교해도 39.8%가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다.

무(1개) 역시 지난달 상순 1128원에서 하순 2088원까지 오르다 지난 1일 2071원

에 거래됐다. 소폭 하락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평년(1174원)보다 76.4% 비싼 가격으로, 한달 전보다는 83.6% 급등했다.

배추와 무 가격은 지난해 상순까지 평년 수준에서 안정세가 유지됐지만 지난달 중순부터 폭염이 이어지면서 작황이 악화해 상승세로 전환됐다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고랭지 배추와 무의 주산지인 강원 태백·정선·강릉지역을 보면 지난달 중·하순 평균 최고기온인 32.5도를 기록해 평년 28도를 크게 웃돌았다. 강수량은 평년 117mm의 12%에 불과한 15mm에 그쳤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 기간 일 최고기온 33도 이상인 '폭염일수'는 지역별로 11~15일에 달해 최근 25년 내 최대 일수를 기록했다"며 "고랭지 배추·무는 노지에서 재배되고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



고온·가뭄에 특히 취약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당분간 고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배추·무 가격 강세는 한동안 이어지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9월 출하 예정 재배 면적이 평년보다 늘어 추석 전 배추·무 수급 불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상 여파에 따른 작황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폭염에 취약한 업체를 비롯한 여름 제철 과일들도 이례적인 폭염에 피해를 입는

등 맥을 못 추며 덩달아 몸값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상순 1포기에 1391원이던 양배추는 이달 접어들면서 3829원까지 오르며 175.3%나 증가했다. 평년 2102원보다도 82.1% 오른 것이다. 시금치(4kg) 역시 이달 2만7181원을 기록하며 평년(2만9139원)에 비해서는 6.7% 하락했지만, 지난달 상순(1만6582원)과 비교하면 폭염이 시작된 이후 한달 만에 63.9% 뛰었다.

여름철 대표적인 과일인 수박(8kg·1개)은 지난달 상순 1만2524원에서 하순 2만2745원까지 오르다가 이달에는 2만3683원까지 올랐다. 한달 만에 89.1%가 올랐고 평년(1만5933원)보다도 48.6%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포도(5kg) 역시 현재 2만3083원으로 평년 1만7631원보다 30.89%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복숭아(4.5kg)도 1만5668원으로 평년 1만4868원에 비해 5.4% 오르는

등 농산물 가격에 전체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무·배추에 대한 생육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축 물량 방출, 조기 출하, 할인 판매 등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에 나서고 있다. 배추는 비축 물량을 하루 100~200t 집중적으로 방출하고, 채소 가격안정제를 활용한 출하 조절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지난 1일 오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가운데)과 태종훈 한전 해외원전사업처장(왼쪽)이 알술탄 K.A.CARE 원장(오른쪽)과 사우디 신규원전 사업수주를 위해 양시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전력 제공>

한전, 사우디 신규 원전 수주 '전력'

왕립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 원장과 협력방안 협의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지난 1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알 술탄(Dr. Al-sultan) 왕립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K.A.CARE) 원장 등과 면담을 하는 등 신규원전건설사업 수주활동 총력에 나섰다

김종갑 사장은 알 술탄 원장과 만나 신규원전 사업수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한전의 사업수행 준비현황을 설명하고, 원자력 및 신재생 분야에서의 양사

간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사우디측 주요인사 면담을 통해 원전수주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김 사장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은 최근 한전이 2800MW 규모의 사우디 신규원전건설 프로젝트의 예비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쟁국과의 치열한 수주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다.

사우디 신규원전사업은 세계원전시장에서 2009년 UAE원전사업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한국을 비롯한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가 입찰에 참여했다.

사우디측은 당초 입찰 1단계에서 2~3배수의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모든 입찰국들이 사우디측 최소 요구조건을 만족했다고 판단해 5개국 모두를 예비사업자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사업자가 발표된 이후 한전은 정부와 함께 발매된 대응체계를 구축해 2단계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한전은 올 하반기에 사우디 현지 로드쇼를 개최해, 양국 기업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현지화(Localization)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재호 기자 lion@

2분기 모바일 쇼핑 16조원 전년비 33%↑...역대 최고

업종별 활약이 늘어나면서 2분기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로 기록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6조53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21.5% 증가했다.

상품군별로는 배달 등 음식서비스(78.5%), 가전·전자·통신기기(25.4%), 여행 및 교통서비스(21.3%)가 증가 폭이 컸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쇼핑거래액은 16조4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2.9% 급증하면서 온라인쇼핑 호조를 이끌었다.

특히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모바일 배달 음식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2분기 모바일 배달음식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88% 늘어난 1조620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이어 e쿠폰 서비스(72.0%), 가구(43.2%), 애완동물(41.1%) 등도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2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894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6% 증가했다. 한중관계가 개선되면서, 중국으로의 온라인 직접판매액이 716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63.2% 늘어났다.

이어 일본 474억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415억원, 미국 407억원 순이었다. 중국이 전체의 80.1%를 차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70.20 (-36.87) ↓ 금리(국고채 3년) 2.11 (-0.01)
↓ 코스닥 781.38 (-8.87) ↑ 환율(USD) 1126.10 (+5.50)



광주은행 카드로 공과금 내면 캐시백 받는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KJ카드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슬기로운 신용카드 자동납부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슬기로운 신용카드 자동납부' 이벤트는 KJ카드로 생활요금(아파트 관리비, 한전전기요금, KT 휴대폰 요금, 도시가스 요금)을 자동납부 신청하고 정상 결제 시 최대 4만원을 캐시백 받을 수 있는 이벤트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아파트 관리비는 자동납부 신청 후 최초 1회 납부고객에게 1만원 캐시백, 연속 2회차 납부 시 5000원 추가 캐시

백(최대 1만5000원 캐시백)▲한전전기요금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슬기로운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 후 1, 2회차 연속 납부 시 각 2,500원 캐시백(최대 5000원 캐시백),▲KT 휴대폰요금 및 도시가스 자동납부 신청 후 1, 2회차 연속 납부 시 각 5000원 캐시백(최대 1만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의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또는 고객센터(1588-3388, 1600-4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 H. 010-6834-7400